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SAC THE LITTLE HARMONY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국악, 기악, 합창 파트로 구성되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 예술단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생들로 구성된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예술의전당의 직접 운영 하에, 우수한 음악 선생님들과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예술 향유의 기쁨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예술단만의 아름다운 음악의 하모니를 곳곳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어린이들만의 국악, 기악, 합창의 각 파트별 연주는 물론 합창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선율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의 편곡은 어린이예술단 국악지휘자 계성원(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과 이영조(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작곡가)가 맡고 있으며, 다양한 전래동요와 민요 모음을 레퍼토리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어린이예술단 후원회와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활동비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개인소유 단원복 제외 / 단, 저소득 계층의 경우 단원복은 예술의전당에서 지급)

어린이예술단의 정기공연은 연 2회로 예술의전당 내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며, 정기공연 외에도 예술의전당 내 · 외부 공연장에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지속적인 무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외부 공연 출연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경우 출연료는 예술단 활동 중 필요한 기념품으로 일괄 구입하여 제공됩니다.

국악파트의 정기연습은 주 1회이며, 매주 화요일 17시~19시30분까지 예술의전당 내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국악파트 지도선생님〉

국악지휘 : 계성원(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국악지도 : 김은경 (풀림 앙상블 단원)

오혜연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보컬 및 추계예대 교육대학원 출강)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 2기 단원 모집

초등학생 음악 꿈나무의 기량 향상과 무대 경험을 위한 최고의 기회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은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SAC THE LITTLE HARMONY)' 2기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국악, 기악, 합창 등 3개 분야로, 2018년 새 학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2기 예술단으로 선발되는 단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예정된 정기 연습을 통해 연주 실력을 기르고, 연 2회 정기공연을 비롯해 예술의전당의 기획 공연과 정부 행사 등에 출연하여 무대 경험을 쌓게 된다.

'예술의전당 어린이예술단'은 예술의전당의 유일한 전속 단체로 국악, 기악, 합창 장르가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종합예술단이다. 입시 위주의 예술 교육과는 차별화된 생활 예술 교육을 지향하며 단원의 문화예술 소양과 연주 기량을 가다듬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6년 12월 창단되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계성원 예술감독, 을예술고등학교 정병휘 지휘자,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의 사상 첫 여성 지휘자로 활약한 김보미 교수(연세대학교 음악대학)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이영조 작곡가 등이 어린이예술단 지도를 맡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이 주최한 2회의 정기공연과 <동요콘서트>, <가곡의 밤> 등 야외콘서트를 비롯해 정부 주최 한글날 행사 등 총 20회의 일정을 소화하였는데, 어린이들만의 천진하고 순수한 무대로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은 바 있다.